

日우익 혐한 시위...“너무 과민반응” 비난도

징용배상 판결 결정 정부 강경 日언론 연일 'BTS 때리기' 팬들은 “지켜 주겠다” 환영 판결 수용 시사 신일철주금 “정부 지침대로” 말 바꾸기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후 일본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인기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TV 출연이 취소되고, 한동안 뜸했던 대규모 혐한(嫌韓) 집회가 도쿄 도심에서 열리는 등 갈등은 정치와 외교 영역 밖으로 퍼지고 있다. 앞서서 정부의 코드가 맞추는 이른바 '손타쿠(村田-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가 작동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5년 전 트윗까지 고집어낸 'BTS 때리기'...팬들 “지켜주겠다”=방탄소년단의 일본 방송 출연 무더기 취소는 멤버 지민이 과거 입은 티셔츠 문패에서 불거졌지만,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대법원판결과 비슷한 시점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방송국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부의 코드가 맞춰 출연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패의 티셔츠를 입은 시점은 작년이지만, 일본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암운이 드리워진 지난달 극우 매체들이 이 사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다. 일본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5년 전 트위터 글까지 고집어낸 'BTS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리더 RM은 2013년 광복절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투사분들께 감사한다. 대한독립만세”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13·14일 도쿄도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의 공연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우익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우익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이런 식의 찬반양론은 10일 방탄소년단이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면서 더 치열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입국시켜서는 안 된다”, “불쾌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다”며 환영하는 글들이 많았다. '방탄소년단 지켜줄게요'라는 한글 해시태그와 함께 팬심을 드러내는 글도 SNS에 퍼졌다. 방탄소년단이 입국할 당시 하네다공항 라운지는 몰려든 팬들로 북적였다. ◇'욱일기' 들고 “한국과 단교하라”...도심엔 때만날 ‘혐한 우익’=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정부에 ‘손타쿠’하는 움직임은 우익들의 혐한시위에서도 드러났다. 10일 오후 도쿄역과 긴자(銀座) 등 일본 도심의 변화가에는 극우 세력들이

주최한 혐한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법기인 욱일기(旭日旗)를 들고 행진하며 “한국에 분노한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돌려달라”, “한국과 단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경찰 당국과 협조하며 우익 시위대의 과격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도 시위대에 접근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신변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손타쿠’는 과거 ‘대법원판결 수용’ 방침을 시사했던 신일철주금이 정각 판결이 나온 뒤 경관의 눈치를 보며 ‘말 바꾸기’에 나선 것에서도 드러난다. 신일철주금의 상무는 지난 2012년 6월 주주총회에서 한국의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판결 당일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는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침에 따른 뜻을 시사하며 말을 바꿨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57〉 현종

憲宗(778-820)은 당왕조 11대 황제로 이름은 이순이다. 15년의 재위기간 동안 원화 개혁을 추진해 왕조 중흥의 군주로 평가된다. 820년 환관에게 피살되었다. 순종의 장남으로 광릉군왕에 봉해졌다. 805년 4월 병약한 순종이 즉위하자 태자로 세웠는데 4개월 뒤 양위 받아 즉위했다. 그러나 순종의 양위설에는 이설이 존재한다. 7월 태자에게 군사, 정사를 위임한다는 황명이 내려졌다. 순종을 보좌한 개혁파가 보수파와 환관세력에 밀려났다. 궁을 지키는 신척군은 구문진 등 환관이 장악했다. 순종의 측근 우소용, 이충언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8월 태상황 순종은 태자가 8월9일 즉위하고 대사면을 실시한다는 조서를 발표했다. 태자가 병든 순

원외랑을 자사로 내려 보내 절도사를 견제하였다. 삭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컸다. 이길 보로 하여금 '원화국계부' 10권을 편찬토록 하고 체계적인 세금징수와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보내는 진봉과 헌납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였다. 812년 하북 3진 중 하나인 위박진이 조정에 귀순하였다. 전제안이 죽자 전흥이 난을 일으켜 당에 귀순한 것이다. 815년 회서의 오원제에 대한 정벌이 시작되었다. 부친 오소성이 죽자 오원제가 직을 계속하려 하였다. 9만명의 군사를 동원했으나 전흥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재상 배도가 현지에 내려가 직접 지휘하고 장군 이소의 맹활약으로 817년 10월 오원제를 생포해 승리했다. 문호 한유는 정벌전에 참여해 평화서비(平和西碑)라는 명문을 남

원화 개혁으로 중흥 이끈 11대 당황제

종을 제거하고 즉위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개혁파의 좌장 왕숙문은 장안에서 2750리나 떨어진 투주사호로 좌천되었다가 다음해 사사되었다. 현종은 806년 연호를 원화(元和)로 바꾸고 원화개혁에 착수했다. 영향력이 커진 환관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두황상을 재상으로 기용했다. 이어서 순종 측근인 왕숙문 일파 8인을 제거했다. 이들은 후일 팔사마(八司馬)로 불리었다. 재위 초기 최대 현안은 군사력을 갖고 반독립적 행태를 보이는 변진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조부인 덕종 때 실시된 삭번(削藩)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806년 검남서진절도부사 유벽이 검남지방의 통치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주청을 조정에서 거부하자 군사를 일으켰다. 재상 두황상의 건의에 따라 신척군사 고승문을 보내 반란을 진압했다. 유벽은 장안에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강남의 진해절도사 이기는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절도유후를 죽이고 난동을 부렸다. 현종은 재상 무원형의 건의에 따라 장안의 입조를 명하고 거부시 응징을 결심했다. 이기 휘하의 병사들이 반기를 들어 경사로 압송했다. 황제는 참형에 처했다. 변진에 대한 강경책은 807년 재상이 발탁된 이길보가 주도했다. 1년만에 36개 진을 교체하고 1급관리

였다. 치정절도사 이사도는 무원형과 배도 암살을 시도했다. 무원형은 살해되었으나 배도는 목숨을 건졌다. 현종의 단호한 삭번 의지에 놀라 성덕절도사 왕승종이 자발적으로 조정에 귀순했다. 치정절도사 이사도가 부하에게 살해되면서 조정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그러나 절도사의 병권, 인사권, 재정권 박탈은 이루지 못했다. 근본적인 개혁조치에는 소극적인 수밖에 없었다. 현종 사후 변진의 반란이 재개되었던 당 멸망의 중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간의대부 무유형은 이러한 현실에 크게 낙망해 “승리에 취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탄식한 바 있다. 정부개혁도 적극 추진했다. 811년 거부하자 군사를 일으켰다. 재상 두황상의 건의에 따라 신척군사 고승문을 보내 반란을 진압했다. 유벽은 장안에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강남의 진해절도사 이기는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절도유후를 죽이고 난동을 부렸다. 현종은 재상 무원형의 건의에 따라 장안의 입조를 명하고 거부시 응징을 결심했다. 이기 휘하의 병사들이 반기를 들어 경사로 압송했다. 황제는 참형에 처했다. 변진에 대한 강경책은 807년 재상이 발탁된 이길보가 주도했다. 1년만에 36개 진을 교체하고 1급관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8일(현지시간) 캠프파이어(북부 뷰트카운티), 울시파이어(남부 말리부 주변), 힐파이어(벤투라 카운티) 등 대형 산불 3개가 발화해 나흘째인 11일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605km)보다 넓은 800km 이상의 산림과 시가지를 불태웠다. 캘리포니아주 말리부 산불 현장 상공에서 이날 소방 비행기가 방화제를 투하하는 모습.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최악 산불 사망자 31명으로 늘어

228명 연락두절...사망자 늘 듯 역대 최악의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주민이 31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경찰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카운티 경찰국의 코리 호네아 국장은 “지난 8일부터 발화한 캠프파이어로 파라다이스 마을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주민 시신을 오늘 하루

동안 6구 더 수습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뷰트카운티를 휩쓴 캠프파이어로 숨진 사망자만 29명으로 늘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캘파이어)이 집계한 주 재난 역사상 단일 산불이 초래한 인명 피해로는 8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캠프파이어가 이날까지 역대 최악의 산불과 같은 수의 사망자를 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 북쪽 샌타로사를 포함해 소노마카운티·나파카운티를 휩쓴 10여 건의 동시다발 산불로 모두 42명이 사망한

적이 있다. 뷰트카운티 경찰국은 또 11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주민 수가 22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까지 연락 두절 상태의 주민은 110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경찰은 하루 사이에 1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실종 상태의 주민이 단순 연락 두절 상태일 수도 있지만, 산불로 전소한 집터 주변 수색이 진행되면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무안 일로읍, 토지 6000평, 15억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8~10M 도로접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타운하우스 최적
 - ✓ 남약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몽탄~일로간 고속도로근접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 급매 - 15억(평당 25만원)
- 문의. 010-6834-7400